

2025년 첨단~상무 자전거 출퇴근 가능해 진다

광주시, 올해 광역도로 등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 9건 추진 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망 확충 광역 지역경제권 활성화

광주시가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도심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는 간선도로 사업은 총 9건으로, 광역도로 1건, 혼합도로 5건, 산단진입도로 3건이다. 시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모두 확보했다.

특히 광역도로사업은 보상비를 포함해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올해 '광주 하남~장성삼계간 광역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함께 각 구간에 대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토지보상과 공사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광주 광산구 장수교차로에서 임곡동 황룡강 구간을 거쳐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암저수지 상부평화공원까지 15.4km 2차로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리

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 노선도 조정한다. 시는 또 올해 설계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혼합도로 개선사업도 진행한다.

상무지구~첨단산단간, 월전동~무진로간, 북부순환도로(1공구), 용두~담양간 등 계속사업 4건과 각화동 도동고개~제2순환도로 구간 신규 사업 1건이다.

2025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는 영산강대교 구간을 중점 추진 중이며 상무지구 시청사 뒷편과 첨단 보훈병원간 4.98km를 잇는 4~6차선 도로가 신설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빛고을대로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 현상이 완화되고, 첨단에서 상무지구 도심까지 자전거도로도 신설돼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도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월전동~무진로간' 사업은 상무교차로 확장과 공황 앞 동송정지하차도의 구조물 설치

공사가 진행중이며, 올해 말이면 상무교차로에서 상무로 구간이 우선 개통될 예정이다.

'북부순환도로' 사업은 올해 1공구 일곡교차로~한새봉~용두동 빛고을대로까지 3.22km 구간 보완설계를 모두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할 방침이며, 일부 우선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에 대한 사전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

시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두~담양간' 사업에 대해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각화동 도동로~제2순환도로간 혼합구간 개선사업은 지난해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국가계획 반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도동로와 제2순환도로를 우회해 이용하던 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시는 해당 도로 개통시 도동로에서 화순방향 제

2순환도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고, 각화동 동문대로 교통량 분산에 따른 상습 정체구간인 각화IC 혼잡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단진입도로 개선사업들도 이어진다.

시는 광산구 평동3차산단과 남구 대촌 에너지밸리산단을 잇는 6.4km 구간 도로 사업을 국·시비를 동시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

국비 구간인 영산강~남구 석정동 2km 구간은 올 상반기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시비구간인 광산구 유계동 동곡식물원~영산강 1km 구간은 국비 구간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진행한다.

김재식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올해는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이 본 궤도에 안착하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며 "특히 도심을 잇는 간선망 도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출퇴근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공장·주택 보일러 교체 저녹스버너 설치 최대 90% 지원

광주시는 "공장, 업무용 상가나 공동주택의 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와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의 노후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할 경우 보일러 용량에 따라 248만원에서 최대 1520만원까지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저녹스버너는 연소시 화염 온도와 산소 농도를 조절해 연소 효율을 높이는 고성능 버너로, 일반 버너보다 연료를 2~10% 절감할 수 있다. 또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주범인 질소산화물도 일반 버너보다 52% 이상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광주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68억원을 투입해 993대를 교체하고, 연간 질소산화물 383t과 이산화탄소 50,147t을 줄여 연간 승용차 8400여대의 운행 중지와 맞먹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도 30대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며, 24일부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24일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설 연휴 24일~2월 2일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단속 완화

광주시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차 단속을 일부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시민 편의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시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불법주차 단속을 완화하고 무질서 해소와 안전을 위한 교통지도도 병행하기로 했다.

광주시내 불법주차 단속을 완화하는 전통시장은 ▲동구 대인시장, 산수시장, 남광주시장 ▲서구 양동시장, 화정동서부시장 ▲남구 무등시장, 봉선시장 ▲북구 서방시장, 두암시장, 운암시장, 팔바우시장, 동부시장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송정매일시장, 송정5일시장, 비야5일시장,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등 18곳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시장 사고현장 브리핑

이용섭 광주광역시시장(제1안전대책본부장)이 23일 오후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24일부터 24시간 실종자 수색 및 구조작업 진행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전남도, 315억 들여 냄새 없는 친환경축산 환경 조성

축산 악취 개선사업 등 7건 추진

전남도가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적정 처리와 축산악취의 대대적인 개선을 위해 올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315억원을 투입한다. 농촌의 거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도시민의 귀농귀어에 기여할 방침이다.

올해 추진할 사업은 축산악취 개선사업,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공동처리 지원사업 등 7개다. 총사업비는 지난해(132억원)보다 2.4배가 늘어난 규모다.

축산 악취 개선사업은 축산농가 등의 가축분뇨처리 개선과 악취 저감,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퇴비사, 액비저장조, 액비순환시스템, 악취저감시설, 분뇨처리용 기계·장비 등을 구축한다. 곡성, 보성, 장흥 등 7개 시군에 총 139억원을 지원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으로 1일 97t의 가축분뇨를 활용해 가스·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연간 1579Mw의 전기 생산과 4156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어 탄소중립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국 2개소 중 전남이 1개소를 차지했다.

공동자원화시설(증축) 사업은 분뇨처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에 정화방류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전국 사업비 122억원 중 가장 많은 54억원(44%)을 확보, 나주, 해남, 영광에 지원한다.

가축분뇨 공동처리 지원사업은 액비유통센터에 액비 수거·운반·살포 차량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 보성, 화순, 장성에 총 8억원을 투입한다. 예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사업은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공급해 농가 컨설팅과 과학적 실증으로 최적의 활용 모델을 개발한다. 전국 2개소 중 함평이 선정돼 10억원 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액비저장조 하부에 고착된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함평에 7억원, 한우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마일형 공동퇴비장을 나주, 무안, 구례에 구축하는데 총 8억원을 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예산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해 축산농가 악취 개선, 미생물 악취저감 효과 실증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친화축산 선도를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관계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로 자연재해에 따른 수산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가능해 어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횡단리새우, 참조기 등도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의하는 등 양식재해보험 품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전복, 굴, 다시마, 농어, 돌돔 등 23종이다. 태풍, 이상조류, 적조 등 재해 피해에 대해 양식수산물은 물론 시설물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흥민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학부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 집 인 원
인문사회	신 학 과	31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9
사범	유아교육과	6
	총 계	7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
사범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악학부	○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2. 1. 10(월) ~ 1. 21(금)
· 전 형 일: 2022. 1. 25(화)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씨로 36